The·K

Interview
강경욱 전북 임실초 교사

행복 만들기
그림책사랑교사모임

브랜뉴 여행
베를린, 장벽 너머의 도시

Monthly Magazine
July 2019
Vol.**23**

CONTENTS

2019 JULY **VOL.23**

4
여는 글
이 계절의 빛나는 전유물

6
Essay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조미성 인천선학초 교사

8
Interview
아이들의 신호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강경욱 전북 임실초 교사

14
Interview
마을이 품은 학교, 그 안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
강수미 서울금나래초 교사

18
아름다운 동행
靑春 그리고 우리가 있었다
강예림 의정부 천보중 교사와 단짝 유지혜

24
먼 나라 교육 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츠와나도 변한다 ❷
이빈 대전용전초 교사

28
트렌드 GO GO
'모두의 여행' 대신
스마트한 '나만의 여행'을 만나다

30
행복 만들기
그림책으로 맛을 낸 학급 운영 비법 레시피
그림책사랑교사모임

34
네오필리아
대한민국은 지금 뉴트로에 풍덩

36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⓫
베를린, 장벽 너머의 도시

42
문화 산책
교육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사불신 vs 최고의 학교

46
꿈꿀 공간
작은 학교가 만드는 행복한 미래
서울용암초등학교

50
The-K Focus
100년의 역사를 우리의 발걸음으로 느끼다
The-K행복서비스 에듀&JOY 서울풍류여행

54
The-K Issue
The-K호텔경주 롱스테이
느릿느릿 경주를 즐기리랏다

56
The-K Family
BBQ&비어 파티가 열리는
정원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The-K호텔서울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3
독자 이벤트
7월 즉석당첨 이벤트

The-K

VOL.23

웹진 |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9년 7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성미 진예원 강나은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국순호 ksh@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이성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이 계절의 빛나는 전유물

우리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어깨에 닿는 햇살이 조금은 더 뜨거워진 계절.
달보다 태양이 더 일찍 인사하며
청귤이 서서히 익어가는 계절.
우리를 열렬히 만드는 온도를 지닌
이 계절의 빛나는 전유물은 무엇일까요.

더욱 씩씩하게 자라는 식물처럼
어느새 찾게 되는 시원한 음료처럼
빨리 걷던 걸음이 조금은 느려지며
말갛게 익은 당신의 해맑음처럼
당신을 닮아가는 우리의 여름이 다가옵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계절을 타고 달립니다.
오래도록 찾아와 함께 하고픈, 남김없이 듣고픈 당신과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작은 위로가 되어
또 한번 당신과 맞이할 여름을 준비하게 합니다.

뜨거운 볕과 유독 푸른 잎사귀, 짙은 그늘
그리고 덩달아 순환하는 바람이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좋은 시간은
당신과 웃으며 거니는 지금이라고.
우리의 빛나는 사계절은 계속됩니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글 **조미성**(인천선학초 교사)

유난히 피곤한 아침이 있다. 눈꺼풀이 무거워 학교에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르겠고, 학교에 와서야 '아, 내가 학교에 왔구나' 깨닫는 날.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연가가 남아도는데도 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교사는 되도록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연가를 쓰는 것이 권장 사항이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제대로 쉬지 못하니 한 달 넘게 잔병치레를 하는 선생님도 많다. 나도 4월 초에 걸린 기관지염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 한 달이 넘도록 가래와 기침을 달고 산다.

아픈 게 맘대로 될 리 없다. 그렇다고 아프니까 하루 쉬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없다. 내가 쉬면 다른 선생님이 귀한 시간을 내어 우리 반 수업을 대신 해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폐를 끼치기 싫은 마음이다. 또 담임이 없을 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 듯하다. 신규 교사 때 장염으로 하루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는데 심각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이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그날이 몸이 아파 결근한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다). 결국 아파도 아픔을 통제하지 못한 나 자신을 책망하며 출근한다. 선생님들은 대개 죽어도 학교에서 죽는 것을 택한다.

이토록 딱 하루만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날엔 반쯤 혼이 빠진 상태로 수업을 한다. 기진맥진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실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깨닫는다. 아무리 배움 중심 수업이 중요해 학생과 교사가 동등하게 상호 작용하는 수업을 지향한다 해도, 교사는 교사이고 학생은 학생이다. 가진 권력이 다르고 말의 힘이 다르다. 교사가 무력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선생님이 무기력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자유분방해진다. 수업과 관련 없는 농담 따먹기가 난무하고, 소곤소곤을 넘어 쑥덕쑥덕 수준의 잡담이 늘어난다. 몇몇 아이는 아예 칠판을 등지고 앉아 친구와 떠들기도 한다.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보자며 스스로를 격려해보지만 격려가 무색하게 얼마 못 가 엉망진창 분위기가 되기를 여러 차례.

"여러분,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진심이 새어 나온다. 잔뜩 무게를 실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던 교실이 늘 그렇듯 소란이 잠잠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선생님 기분을 먼저 파악한 어른스러운 아이들의 눈빛에선 불안과 초조가 감지된다. 이내 정적이 흐르는 교실. 이런 분위기가 싫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찬란한 세상을 접어두고 선생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적막과 긴장의 상황.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친절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조금 더 무서웠더라면 우리 반 수업 태도가 더 바랐을까요?"

아이들은 아니라고 자신들이 너무 심했다고 대답한다.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며 살지만 아이들에게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꺼낸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기 싫어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는 때리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일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아프게 남아 있어 여러분에게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여러분에게 조금 실망감이 들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심각한 표정. 내 마음이 얼마나 가닿았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찌어찌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이들이 하교한 후 오늘 상황을 되돌아본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컨디션 관리에 실패한, 더 힘차게 지도하지 못한, 더 흡인력 있게 수업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내 부족함을 아이들 탓으로 돌렸다.

아이들은 아이답게 행동한 것뿐이다. 아이들은 떠드는 게 당연하고 집중력이 짧은 게 당연하다. 앉아 있기보다 돌아다니는 게, 뛰어다니는 게 자연스럽다. 다 알면서 아이들이 내 맘 같지 않다며 원망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는데, 너무 소중해 한마디 한마디 곱게 건네려고 노력했는데…. 독선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소통하는 선생님이려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학교를 바라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가를 바라고 있는 추한 내 모습.

이 아이들을 위 학년으로 올려 보내는 날 마음이 미어질 것을 알기에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다. 몸이 안 아프고 싶다. 컨디션이 한결같이 좋고 싶다. 매일매일 잘하고 싶다. 한 시간 한 시간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주고 싶다.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체력과 감정을 일정하게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하도 말을 안 듣는 우리를 보며 한숨 섞인 말을 하시던 기억이 난다.

"교사는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아도 항상 밝은 가면을 쓰고 수업해야 해요."

그 당시는 딱히 공감이 가지 않았다. 이해할 마음조차 들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그 말을 하는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쓸쓸해 보여 기억에 오래 남았다. 오늘에야 그 말이 어렴풋이 와닿는다. 선생님으로 사는 것, 참 쉽지 않다. 그래도 이왕이면 밝은 가면을 써야 하는 날이 많은 선생님보다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레 밝아지는 선생님으로 살고 싶다.

조미성 인천선학초 교사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너무나 흠뻑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에 덩달아 행복해지고 아이들의 눈물에 덩달아 마음이 쓰립니다. 매번 돌아오는 이별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아요. 급식을 먹고 또 먹다 보면 언젠가 적당히 마음 주고 적당히 웃으며 보내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이들의 신호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강쌤과 떠나는 상상 여행

강경욱 전북 임실초 교사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임실우드가 있다. 임실우드에서는 뮤직비디오 하나로 유튜브 스타를 만들어내고, 초단편영화로 트로피를 줄지어 수상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모든 결과가 교사 한 명과 아이들이 제작, 기획, 편집, 시나리오, 조명까지 맡아 이뤄낸 결과라는 것.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영화를 전북 임실에서 만들고 있었다. 글 설미 사진 한상무

"아이들의 경험을 듣고,
그 경험을 영상에 녹아내려고 노력해요.
저도 가끔 배우를 맡지만 주로
아이들이 연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연기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내용에
공감해야 하죠."

아이들의 상상은 영화가 된다

"자, 각자 장비 들고 학교 뒤 벤치에서 모이자."
선생님의 한마디에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챙기고 밖으로 나간다. 아이들이 챙긴 것은 카메라와 삼각대, 마이크가 달린 휴대폰, 조명, 슬레이트 클래퍼보드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듯 분주하게 삼각대와 조명을 설치하고, 대본을 훑어본다.
이 아이들은 바로 유튜브를 통해 장안의 화제가 된 '강쌤의 영화교실' 연기자이자 스태프다. 전문 배우와 스태프 못지않은 손놀림이지만 영화 제작 현장과 달리 아이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강경욱 임실초 교사 역시 아이들 앞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카메라 액정으로 본 아이들의 모습은 그 나이대만의 순수함을 품고 있어 미소 짓게 할 때도 있고, 깜짝 놀랄 만큼 진지해 놀라게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공통점은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경험을 듣고, 그 경험을 영상에 녹아내려고 노력해요. 저도 가끔 배우를 맡지만 주로 아이들이 연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연기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내용에 공감해야 하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사와 함께 만든 영상이라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1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강쌤의 영화교실'을 구독하고, 인기 있는 게시물은 지금껏 67만 번 이상 재생되었다. 그뿐 아니라 '신라면 29초 영화제'에서 청소년부 대상을, 'LG 1분 1초 영화제'에서 장관상을, '국세청 30초 영화제'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심지어 팬심으로 만든 가수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뮤직비디오는 장범준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며 응원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뮤직비디오를 찍다 보니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주 들으면서 아이들도 장범준 씨의 팬이 됐죠. 그런데 장범준 씨가 직접 댓글을 달아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댓글을 보자마자 아이들과 소통하는 메신저가 난리가 났죠. 아이들도 저도 매우 기뻤어요."

9년 차 초등교사, 3년 차 교사 크리에이터

9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강경욱 교사는 교사 크리에이터로 불린다. 흔히 개인이 혼자 콘텐츠를 기획, 제작, 유통하는 사람을 일컫는 '크리에이터'라는 말에 '교사'라는 단어를 붙였다.
"저는 일반 크리에이터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영상 콘텐츠를 만듦으로써 아이들이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캐릭터, 경험, 배경지식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을 택한 것이죠."

왠지 과거에 영화감독을 꿈꿨을 것만 같은 강경욱 교사이지만 그의 꿈은 의외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 '선생님'이었다.
"진부한 대답일 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좋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과정을 스스로 즐기더라고요. 교사가 천직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교사이셨으니 그 영향도 받았겠죠."
꿈이 확실했고 그 꿈을 이뤄 현실이 되었지만, 막상 교사가 되자 방황이 시작되었다.
"교육을 제대로 배우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공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싶었죠.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퇴근이 빠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어 진로로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고, 진정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계속 꾸고 있었죠."
두 번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자서 답이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 짓눌렀다. 그는 답답함을 풀어내기 위해 영어교육학 석사과정을 공부해 학위를 받고, 창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무엇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길이 보였다.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아이들이 빠져 있는 유튜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에 교육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큰 관심을 얻지는 못했다. 교육 영상은 재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고심 끝에 강경욱 교사가 택한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는 것. 그는 편집은 물론 촬영, 시나리오, 기획, 연출, 배경음악 등 영화 전반을 공부했고, 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모집했다.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던 아이들은 모여들었고, 그렇게 만든 영화 제작 동아리가 올해 3년째를 맞았다.

창의성이 펼쳐지는 '강쌤의 영화교실'

"지난해보다 장비가 훨씬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조명도 없고,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삼각대와 휴대폰만으로 촬영했거든요. 지금은 정말로 영화 찍는 분위기가 나요."
지금은 수많은 공모전의 입상으로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장비를 갖췄지만 영화 제작 동아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장비는 매우 보잘것없었다. 경제적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강경욱 교사의 월급으로 비싼 장비를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했죠. 다행히 결과가 좋아 상금으로 장비도 마련하고, 아이들과 회식도 했어요."
그사이 물의 소중함, 핸드폰 중독을 넘어 성 평등, 위안부에 이르기까지 영상의 주제도 다양하고 깊어졌다. 특히 작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영상 '꽃'은 어른은 물론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에게까지 큰 감명을 주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올해 고작 한 줄 나오는 정도이지요. 저는 이 점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아이들만 모여 함께 촬영했죠. 영화를 찍으면서 위안부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들이 배우가 되어 촬영하면서 감정이 동요되어 울기도 했어요. 완성된 결과물을 보곤 저도 아이들도 생각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영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의 배움은 교과서 안의 내용보다 교과서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 예로 학교 폭력에 대한 영상을 만들며 아이들이 느낀 것은 단어 하나에도 타인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교육은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한창이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를 영상 콘텐츠로 채울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분야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미래에도 어떤 분야에서든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만의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아이는 하나의 콘텐츠

아이들은 영화를 찍으며 부쩍 자랐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던 신안이가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을 내비치기 시작했고, 가영이는 영화감독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원래 사진을 좋아했는데 영화 제작 동아리에 들어와서 구도나 연출, 카메라 촬영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인기 많은 영화의 크레딧이 올라갈 때 촬영감독이라는 글씨 옆에 제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상식에 직접 참여하고,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은 나날이 자라났다.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학부모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 처음에는 기대반 우려 반이던 부모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영화 제작 동아리를 응원한다.

“학원을 다니던 아이에게 ‘학원 대신 강쌤과 함께 끝까지 영화 찍어봐’ 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영화 찍느라 아이가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전화를 드리면 ‘괜찮습니다.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씀해주시기도 해요. 그런 응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경욱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도 영화 제작 동아리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졌다.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아이들은 어떤 일이든 그를 찾는다. 발표할 사람을 찾으면 모든 아이가 손을 들고, 쉬는 시간에도 찾아와 교과 시간에 궁금했던 것을 묻는다. 이제는 손짓 눈짓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어떠한 벽도 남아 있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장난처럼 제게 물어요. 단편영화계에서 부르면 가겠냐고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아이들을 못 만나잖아요. 저는 영상을 찍고 있지만 뿌리는 교사입니다. 모든 아이가 하나의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행하는 교육자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은 수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욱 교사는 이미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펼치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상상하고 또 상상해 새로운 심상을 가지게 하는 것. 그 무대만 만들어준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이들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마을이 품은 학교 그 안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달리는 아이들의 얼굴이 그저 해맑다. 학교 밖 세상은 또 다른 배움터. 학교에서 배우는 삶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집과 학교를 오가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넓어질 배움의 터를 위해, 자기 삶의 주인이자 당당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마을로 나선 교사가 있다. 온 마을과 함께 자라는 아이를 위한 길, 온 마을이 행복한 길, 그 길을 따라 강수미 서울금나래초 교사도 교문 밖으로 나섰다.

글 **진예원·은수정** 사진 **한상무**

강수미 서울금나래초 교사

소중한 공간에서 자라는 참 괜찮은 아이

서울금나래초등학교 1학년 교실 칠판에 아이들의 얼굴 꽃이 활짝 피었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문구와 아이들이 그린 자신의 얼굴이 꽃같이 걸려 있다. 강수미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실 곳곳마다 자존의 흔적을 남긴다.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자존감’ 형성은 교실 안에서 국한하지 않는다. 교실 너머 학교 밖으로까지 나아가 행복의 흔적을 다진다.

“아이들이 지금 사는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자신이 참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공간, 우리 부모님,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존감이 큰 아이들로 커갔으면 해요. 거기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무 해가 넘는 교직 생활은 강수미 교사에게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그렇게 알게 된 아이의 고민은 그의 고민이 되기도 한다. ‘교사인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반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끝없이 이어지는 고민은 다른 생각을 낳는다. 다양한 길을 모색하던 강수미 교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떠올렸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은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었다.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아이들이 마을의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마을을 걸어 다니며 반 아이들과 학부모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강수미 교사는 마을로 나갔다.

살아 있는 배움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동네’에 관한 내용이 있다. 아이들은 나와 가족에 대한 이해로 시작한다. 이는 이웃과 동네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학년은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부모님과 함께 다녀보며 무엇이 있

> 아이들이 지금 사는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 이곳에서 자신이 참 괜찮은 아이라고
>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내가 사는 이 공간, 우리 부모님, 친구
>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 자존감이 큰 아이들로 커갔으면 해요.
> 거기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3학년은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해, 4학년은 시(市) 단위를 배우며 포괄적으로 영역을 넓혀간다.

이 과정 중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예로 3학년은 구로·금천·영등포에 관한 지역화 교과서가 있지만 3개 구가 함께 들어가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어려웠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선 필요한 것과 결핍된 것을 알아야 했다.

"교사들도 본인이 사는 지역구가 아니면 어려워요. 부모님도 토박이로 살고 계신 분이 아니면 모르시는 분이 더 많고요. 3학년 선생님들에게는 항상 답답한 고민이었죠. 그래서 마을에 계신 주민과 함께 마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교류해오던 마을의 시민사회 단체, 교육단체와 탐방을 하며 공부했어요. 구(區)의 역사와 관련한 것은 이곳에 오래 사신 주민을 만나고, 문화·예술 부분은 활동하고 계신 단체를 만나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혁신교육지구의 예산과 여러 마을 단체,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기 사는 내가 좋아>라는 교사 연구 지도서다. 강수미 교사는 이 교사 연구 지도서가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3학년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 과정에는 언제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언제나 적극적이셨어요. 저도 금천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요. 구(區)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지명 유래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 잊혀가는 우리 고장 문화유산, 호암산과 잣나무 숲 생태 등 마을을 최대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완성된 지도서는 먼저 아는 선생님들께 조금씩 나눠드렸는데 마을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힘든 작업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제, 오늘, 내일이 이어지는 더불어 사는 삶

강수미 교사는 교사 연구 지도서를 제작하면서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참여 교사가 그 마을 주민일 때 일반 사례보다 더욱 돋보였다. 여러 사례를 보고 비록 내가 이곳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터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교사들끼리 답사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교사 연구 지도서를 만들며 다닌 프로그램 그대로 코스를 짜주셨습니다. 공단과 산업 관련 코스, 문화·예술 관련 코스, 자연·생태 관련 코스 등 구(區)와 관련한 여러 코스를 만들어 원하시는 선생님들께 연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음알음 시작한 것이 혁신교육지구 내 교사 연수 프로그램 중 마을 알기 프로그램으로 정착했죠."

교사 연구 지도서는 더 나아가 3학년 수업 시간에 바로 활용될 워크북 형태 마을 교과서의 바탕이 되었다. 마을 교과서는 의미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호평을 받았고, 참여한 교사들도 보람을 느꼈다. 이 보람은 모든 작업을 도맡아 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교사와 학교와 마을이 뜻을 모아 함께 만든 교과서는 아이와 학부모에게도 좋은 공부가 된 것이다.

"마을 연수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을 알아보고 좀 더 가까이에서 살피자 모르고 지나쳤던 또 다른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 마을에 대해 어렴풋이 알던 선생님들도 직접 보고 발로 뛰면서 배우자 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가 깊어졌대요. 아이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거죠."

강수미 교사가 맡은 1학년 아이들도 마을에서 공부한다. 매주 화요일 학교 앞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화들장에서 나들이도 한다. 그날이면 "선생님, 우리 동네 화들장은 최고예요!"라고 외칠 만큼 아이들은 즐겁기만 하다. 날이 좋으면 안양천에 직접 나가 관찰하고 교실로 돌아와 그림을 그린다. 학교 내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마을에서 채우는 것이다.

어제, 오늘, 내일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으로 굳건히 자랄 것이다. 삶의 주인이자 당당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배움의 터가 함께 있기에.

青春 그리고 우리가 있었다

강예림
의정부 천보중 교사와 단짝 유지혜

강원 삼척의 여름빛은 열렬하다. 아무렇게나 휩쓴 햇살이 얼굴에 닿는다. 햇살이 바다에 모이자 윤슬이 탄생한다. 우리의 청춘도 이처럼 반짝였을까. 15년 내리 함께한 너와 내가, 우리가 떠난 첫 여행이었다.

글 **정수희** 사진 **한상무**

고받은 날, 방 안에 누워 낄낄대던 밤, 달이 흘러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밤새 수다 떨던 시간. 소소한 행복이란 이런 것일까. 청춘은 그렇게 푸르고 소박한 나날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들은 함께였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나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어도 즐겁기만 했다.

"학교가 너무 좋아 주말에도 학교에 갔어요. 어차피 공부할 거면 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었죠. 학교는 좋은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도요. 학교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어요."

행복한 순간은 미래를 결정한다. 강예림 교사는 학교에 머물고 싶다는 꿈을 이뤘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교사가 되었다.

청춘은 언제나 너와 함께였어

미래를 앞서 내다볼 수 있을까. 버스를 타고 기차에 몸을 싣고 7번 국도를 함께 달릴 줄은 몰랐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은 빛나고 또 빛났다. 그렇게 강예림 의정부 천보중 교사와 단짝 유지혜 씨의 첫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처음 학교에서 만났다. 2005년 3월 천안 복자여고 1학년 교실, 그중 씩씩한 형 같은 소녀와 한없이 부끄럼 많은 소녀가 친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철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 서로를 부르던 별명은 여태 이어져 평생 이름이 되었다.

"지금도 별명으로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지혜는 또치, 저는 찡찡이요. 반 분위기가 좋아 모두와 친했지만, 지혜와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붉은 독수리'라는 독서 모임도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만들어 함께했죠."

걱정과 근심, 우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춘기 시절, 그들은 두려운 게 없었다. 좋은 책을 주

정동진역에 앉아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두 친구는 눈이 마주쳤다. 말갛게 웃는 서로가 보였다.
15년이 지났지만 한결같았다. 바쁜 일상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익숙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를 공감하며
시간을 나누는 시간은 소중했다.

"예림이는 새로운 경험을 누구보다 먼저 하는 친구예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해내곤 했죠. 혼자 뮤지컬을 보고, 검도를 배우고, 서핑도 하고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다녔어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었죠."

"또치는 핵인싸 기질이 있어요. 제가 없어도 우리 부모님을 만나 함께 밥을 먹을 정도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가족으로 인해 더욱 가까워졌다.

"예림이는 처음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저보다 우리 엄마가 먼저 생각났대요. 엄마 선물로 루르드 성지에서 성수와 묵주를 사 왔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서로의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물론 3년 전 강예림 교사가 결혼할 때도 함께였다. 유지혜 씨는 결혼식 내내 곁을 지키며 새로운 행복의 길을 걷는 친구를 응원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다. 작은 항구에 내딛는 두 친구의 발걸음마다 석양이 따라오며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그저 곁에서 묻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

이튿날, 7번 국도를 타기로 했다. 삼척에서 정동진까지 푸른 바다를 오른쪽에 품고 계속 올라갔다. 바다는 선을 그리며 하늘로 뻗었다. 일렁이는 파도가 적잖이 눈부셨다. 정동진에 다다르자 강예림 교사가 싱긋 웃는다.

"임용고사 합격자 발표일에 정동진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다행히 기차 안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그때 이후 정동진에 오는 건 처음이에요. 지혜와 함께여서 더 기뻐요."

정동진역에 앉아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두 친구는 눈이 마주쳤다. 말갛게 웃는 서로가 보였다. 15년이 지났지만 한결같았다. 바쁜 일상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익숙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를 공감하며 시간을 나누는 시간은 소중했다.

"교단에 선 예림이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잘 알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칠판에 문제를 쓰고 친구들을 앉혀놓고는 '자, 이것 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풀어볼까?' 하며 써내려갔어요. 참 야무지고 똑 부러진 친구였죠."

수입 유통 전문 회사에서 리빙 MD를 맡고 있는 유지혜 씨의 말을 강예림 교사가 잇는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십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대중에게 소개하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강예림 교사는 교사가 아닌 친구들을 만날 때면 이야기를 더욱 청한다. 호기심 가득한 질문은 필수.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른 세상을 배운다.

"저는 친구 같은 선생님도 좋지만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고 싶어요. 학교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고 싶고요. 그래서인지 교실 밖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접해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푸른 바다는 알고 있다. 서로에게 작은 휴식이 되고 짙은 그늘이 되어주는 두 친구의 마음을.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꿈을 다짐하며 다시 7번 국도를 따라 몸을 실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청춘

강릉 송정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여름이면 서퍼들에게 양양, 삼척과 더불어 최고의 바캉스 여행지로 꼽히는 곳. 돗자리 하나만으로 낭만을 만드는 이곳에서 우리의 여행을 마치기로 했다.

"사실 만날 때마다 옛 추억 이야기를 하는 게 지겹지 않지만 앞으로 15년을 더 이야기할 추억이 생긴 것 같아 기뻐요."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넘실넘실 웃던 소녀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20대를 지나 어느덧 서른 살을 추억하는 30대가 되었다.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니 알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만남과 우정은 없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내온 시간을 되짚어봤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지켜온 시간과 무엇보다 그 우정을 우선시해줘 고맙다는 것을요."

새롭게 걸을 미래에는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곱씹던 지난 추억, 누군가를 만나며 행복하고 애잔하기도 한 비밀을 서로에게는 나누었던 것. 그리고 다짐한다. 앞으로 우리가 공유할 이야기는 더없이 우주만큼 더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미래의 우리에게 속삭인다. 멈추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를 위해.

두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장호 어촌체험마을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 여름이면 스노클링과 투명 카누, 스쿠버다이빙, 바다 래프팅, 해양 레일바이크 등이 가능하다. 특히 투명한 카누와 스쿠버다이빙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로 입소문이 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장호항어촌체험축제'도 열린다.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31

갈남항

인기 관광지의 인파가 부담스럽다면 갈남항을 추천한다. 명태잡이 어선의 모항이었던 만큼 한때는 많은 배가 모여들었던 항구. 지금은 아담한 항구 마을이지만 매력이 흘러 넘친다. 작은 백사장과 빨갛고 하얀 등대, 에메랄드빛 바다, 갈남해변에 누워 보는 하늘마저도 잔잔한 감동을 선물할 것이다.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정동진역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유명한 정동진역은 우리나라의 대표 일출 여행지로 꼽힌다. 동해의 랜드마크이자 53km의 바다 운치를 즐길 수 있는 '바다열차'는 인기 만점이다. 정동진 해수욕장, 수령 30년 된 해송(모래시계 나무), 정동진 조각공원과 통일공원, 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여행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17

강릉 송정해수욕장

탁 트인 바다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강릉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을 따로 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소나무가 짙은 그늘을 만든다. 최근 서퍼들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해 카이트보딩, 카이트서핑을 즐기는 서핑족을 여럿 볼 수 있으며, 오션 뷰가 가능한 카페 거리 또한 이곳의 대표 명소로 유명하다.

강릉시 송정길30번안길 20-3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강예림 의정부 천보중 교사

우리끼리 노는 모습을 기록하면 어떨까 상상만 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어 무척 기뻐요. 우리 모습을 보다 예쁘게 담아주신 <The-K 매거진>에 감사드립니다. 1박 2일 여행이 이리 소중하다는 것을 어른이 된 지금에야 알았네요. 고등학생 때는 매일 매일 붙어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죠. "또치야, 바쁜데도 선뜻 함께 여행해줘 고마워. 너와 함께한 이번 여행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거야."

단짝 유지혜

어느 곳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좋았어요. 잠시 스친 곳마저도요. 너무 바빠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잔잔한 힐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림이와 아름다운 풍경, 행복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지는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찍은 사진은 이번 한 번뿐인데,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순간순간을 사진에 담아주셔서 특히 감사해요. 여러모로 완벽하고 행복한 1박 2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츠와나도 빈한다

어쩌다 이번 호까지 쓰게 되었다. 지난번에는 대체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불편한 이야기도 담으려 한다. 한국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아쉬운 소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는 애정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혐오나 싫증 탓이 결코 아니다.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했다는 사실로 나의 애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글·사진 **이빈**(대전용전초 교사)

보츠와나 영화관에서는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개봉하자마자 관객 수가 1000만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세 번이나 봤는데,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영어가 짧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까닭이 더 크다. 보츠와나는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라 당연히 자막이 없고, 세 번쯤 보니 온전히 들리는 것 같았다.

6300원에 영화 한 편이라는 적은 부담 덕에 영화관을 자주 찾는 편이다. 영화관을 자주 방문하며 깨달은 게 있다면, 이곳 사람들은 영화를 소극장에서 연극 보듯이 한다는 점이다. 영화와 달리 연극은 관객의 책무가 크다. 맞장구도 쳐줘야 하고, 평소보다 더 크게 웃어줘야 하고, 가끔 소리도 질러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츠와나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관객이다. 이를 테면, 캡틴이 토르 망치를 휘두르는 순간 거의 모든 관객이 "Captain! Go, Captain!"이라고 외쳐댔다. 또 사라진 동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립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누가 보면 콘서트 중인가 오해할 정도다. 심지어 벌떡 일어나 캡틴을 따라 샤도 복싱을 해대는 친구도 몇몇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내 옆에는 한 노신사가 앉았는데 "쟤가 누구냐?" "쟤네는 어째서?" 등 자꾸만 묻기에 몇 번 대답해드렸다. 이분은 마침내 타노스가 사라지는 장면에서는 내 손을 꼭 잡고 토닥여주셨다. 어르신, 처음 뵙습니다만!?

식당에서 자주 겪는 일

보츠와나에 와서 가장 불편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음식이다. 한국과 보츠와나 사이의 공간적 거리만큼이나 음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문화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품질에 대한 이야기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어제 시키고 오늘도 또 시켰는데 맛과 모양이 다르다. 심지어 4성 호텔에서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어쩜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KFC, 피자헛 같은 글로벌 체인도 한국의 맛을 기대하면 무척 실망하게 된다. 몇몇 독자는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라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변화를 주기 마련인데, 취향의 차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일정 부분 맞지만 단지 그 때문에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 가는 KFC 몰레폴롤레(Molepolole) 지점을 예로 들면, 가끔 닭다리 관절에서 심한 누린내가 날 때가 있다. 결국 먹지 못하고 살을 발라 개를 먹인다. 또 매번 뿌려주는 소스의 양이 달라 같은 버거인가 싶을 때가 많고, 튀김옷의 두께가 매번 다르며, 소금 간이 제각각 다른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닌 기술과 숙련도의 문제다. 객관적이기 어려운 맛 앞에서 자꾸만 객관성 타령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들은 덜 좋은 재료로, 덜 숙련된 사람이, 더 적은 노력을 기울여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음식의 맛뿐이 아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들도 어색하고 서툴다. 대학생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달 했는데, 그때 서툴던 내 모습이 연상된다. 주문을 잘못 받아 음식을 다시 해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접시 깨지는 소리도 자주 들린다.

다른 예로는 방학 때 여행을 하는 중에 10명이 같이 밥을 먹고 그중 한 친구가 한꺼번에 카드 결제를 했는데, 종업원이 130만원이라는 경이로운 영수증을 준 것이다. '0'을 하나 더 누른 것이다. 뭐,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는 취소하는 방법을 모르니 매니저가 출근하는 다음 날

다시 와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종업원도 카드 기계를 다룰 줄 몰랐다. 이들은 그저 '손님이 카드를 주면 기계에 꽂고, 금액을 누르고, 종이가 출력돼 나오면 뽑아서 준다'는 단순한 절차 말고는 배우지 않는 것이다.

교육기관도 별반 다르지 않아

지난 호에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며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현지 교사들의 무능함과 무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역 교육청에서 제작한 시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동료 교사의 무지함에 충격을 받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말했다. 학교장에게 도움을 받아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며칠간 연수를 했고, 현지 교육부에 부탁해 나를 다음 학기 출제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고는 한 달이 지났다.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선, 중앙 교육청에서 우리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는 내 요구 사항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시험지가 어떻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실상을 보자고 해 이메일로 사본을 보냈다. 학교장도 다음 시험 출제 때 교감과 함께 출제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이 같은 요구가 너무 당돌하지 않았는지 '네가 뭔데, 감히?' 같은 반감을 사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다행히 잘 받아주었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었고,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 먼저, 교육청 담당자는 내가 보낸 이메일을 받은 후 한 달째 답이 없다. 지역 교육청에 연락하겠노라 약속도 했는데, 실제로 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학교장은 잊어버렸다고 한다. 한동안 교감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아 어디 편찮으신가 했더니 그사이 2학기 말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고 한다.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 2학기 시험 출제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이곳에서 겪는 불편함과 실망은 대체로 사람 탓이다. 이곳에 부족한 것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본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화 관람 태도, 서툰 요리사와 종업원들, 그리고 말로만 협조하는 교육부 담당자와 동료 직원들을 보고 있자면 자꾸만 실망하게 된다. 나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갔는데 몇 시간을 기다린 이야기, 진료 후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의

사에게 레터를 써달랬더니 내일 오라고 하고, 다음 날 갔더니 또 내일 오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는 이제 익숙하다.

학교라고 다르겠나. 현지 교사들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지어인 세츠와나(Setswana)로 수업을 한다. 본인부터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건물을 수리한다고 2주째 야외 수업 중이지만, 어쩐지 망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 다른 파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태블릿 수십 대가 창고에 처박혀 있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쓸 줄 아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곳엔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다. 문화 지체와 인적 자원의 부재가 지나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이곳에 올 때 정말이지 의욕이 넘쳤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었고, 주변 교사들에게도 '선진 문명'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에게 "모르면 손을 들어라.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준다"라고 수십 번 반복해야만 했다. "나는 너희의 공부를 돕는 사람이지, 모른다고 혼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실제로 손을 드는 학생이 나타나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맞아가며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 시험 결과를 놓고 담임교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일일이 계산하는데, 이것만 사흘을 한다. 보고 있자니 답답해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엑셀로 양식을 짜줬다. 꽤 긴 시간을 들여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실습까지 도왔다. 단 2명뿐이지만 이들은 이제 컴퓨터로 결과를 정리한다.

무언가를 급하게 바꿔보겠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하는 것 같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을 고쳐먹어가며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 학교장과 담당자가 이번 학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 덕에 이번 월말 고사에 앞서 수학과 과학 시험지를 검토할 수 있었고, 오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교사들에게 공지할 수 있었다. 시험 당일엔 오류가 있는 문항은 칠판에 큼직하게 적어두어야 한다는 요청도 받아들여졌고, 학교장은 교실을 돌며 일일이 확인하셨다. 어쩌면 이 당연하고 별것 아닌 일을 하기 위해 지난 학기의 소란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이빈 대전용전초 교사
지난 1월부터 조금은 느리고 답답한 이곳, 보츠와나에서 잘 살고 있다. 친구들과 가족은 왜 험한 데 가서 사냐며 아직도 잔소리를 하지만, 나의 삶의 질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다. 이곳 학생들이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것 말고는 더 바라는 게 없을 정도다.

‘모두의 여행’ 대신 스마트한 ‘나만의 여행’을 만나다

어느새 달라진 여행 트렌드

“마음이 번쩍하면 즉흥적으로 떠나요”

최근 여행 트렌드를 함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년 전부터 여행지를 물색하고, 6개월 전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석 달 전에 숙소를 예약하고,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 떠나던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여행 앱에서 초저가 항공권이 나오면 곧바로 일정을 체크한다. SNS에서 매력적인 호텔 사진을 보면 객실이 빈 날짜를 찾아 예약한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멋진 장소가 등장하면 가능한 한 빨리 갈 방법을 찾는다. 너무 유명해져 사람이 미어지기 전에 찾아가야 한다.

이런 충동적 여행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도구는 스마트폰이다. 여행 앱은 전 세계 항공권, 숙소를 비교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게 해준다. 항공사 앱의 모바일 체크인을 이용하면 먼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출국 수속도 빠르다. 현지에서 포켓 와이파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추장스러운 여행 가이드북을 챙겨 갈 필요도 없다. 구글 지도 앱을 켜면 숙소로 가는 경로, 교통수단, 예상 시간까지 알려준다. GPS로 내 위치를 확인하도록 허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주변 식당, 카페, 베이커리, 볼거리 등을 지도 위에 보여주고, 해당 장소를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와 별점을 참고하게 해준다. 인공지능 앱은 통역을 도와주고, 여행 목적지를 입력하면 우버 택시 요금을 확인해준다.

이렇게 전통적 여행사, 현지 가이드, 단체 투어 버스의 역할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당연히 소규모 여행객의 비중이 늘고 있고, 심지어 혼자 여행 다니는 ‘혼행족’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혼자 온 사람의 비중이 33.9%, 국내 관광객도 34%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의 올해 2분기 고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여행을 다녀본 경험자가

요즘 여행은 이상하다. 쉽게 떠나고, 짧게 즐기고, 갖가지 방법으로 자랑한다. 요즘 여행은 별종이다. 영화는 스트리밍, 음악은 음원, 만화는 웹툰,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에 유독 아날로그 강자로 번성하고 있다. 요즘 여행자들은 달라졌다. 여행사 깃발을 우르르 쫓지 않고 제각각 취향대로 움직인다. 스마트폰, 액션 캠, 유튜브 그리고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렌털 서비스가 우리 여행 풍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73.7%에 달했다. 이런 만큼 여행업계도 혼행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홀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짧은 가이드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나만의 맞춤형 자유여행을 위해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에 아날로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에 쏠리는 관심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은 뻔하디뻔한 유명 관광지의 기념사진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장소, 그 시간에 직접 가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액티비티를 선호한다. 동남아시아 청정 해변에서 일정 기간에만 허가해주는 스킨스쿠버, 영국 웸블리에서 펼쳐진 방탄소년단의 역사적 공연, 이번 주말 남태평양의 밤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세기의 천문 쇼 같은 것이다.

꼭 거창한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다. ‘현지 시장 재료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 ‘생물학자와 함께 하는 조류 관찰 탐방’ 등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같은 도시를 같은 시간에 가더라도 전혀 다른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액티비티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인싸(insider의 준말)’들의 ‘#여행스타그램’ 때문이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여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는데, 특별한 곳에서 남다른 체험을 하는 동영상이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때론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중계를 할 수도 있다. 인스타용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아예 여행하는 동안 특별한 의상 콘셉트를 유지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SNS의 대리 체험으로도 여행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인터넷 접속을 극도로 줄이며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여행자도 있다. 단체 채팅방에 끝없이 올라오는 메시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예 전화조차 어려운 오지를 찾아가기도 한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에코 투어리즘’과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극적 현장을 찾아가는 ‘다크 투어리즘’에 참여하는 여행자도 있다.

여행은 어쨌든 많은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행동이기에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사치스러운 즐거움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평소에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던 ‘가치’를 찾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스마트 시대의 기술 발전은 여행을 더욱 유연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 자유로움을 체험한 여행자들은 자신의 취향을 더욱 용감하게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다시 기술은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화한다. 이런 ‘맞춤형 자유여행’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행지 제안, 기상조건에 맞춘 실시간 액티비티 추천, 시니어를 위한 슬로 프로그램 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여행 방식은 지난 10년간 놀랍게 바뀌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 눈부시게 바뀔 것이다.

그림책으로 맛을 낸 학급 운영 비법 레시피를 모으다

—

그림책사랑교사모임

—

산해진미를 모아 각 재료의 맛을 살리면서 조화로운 음식 맛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능숙한 셰프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개성 넘치는 아이들이 조화롭게 한 해를 보내는 일은 아무리 경험 많은 교사라도 쉽지 않다. 담임교사로서 학급 운영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들이 만든 레시피를 펼쳐보자. 글 **강나은** 사진 **한상무**

반 아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그림책이라는 마법

흔히 '책으로 배웠다'는 표현은 현실을 모른다는 의미로 쓰인다. 책으로는 익혀도 현실에서는 이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에 나온 대로 아름답고 현명하게 현실을 바꿔나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그림책사랑교사모임' 교사들이다.

그림책사랑교사모임은 처음에는 그림책을 주제로 토론 수업을 연구하는 모임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림책을 통해 학급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놀라운 점은 중·고교 교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처음 그림책을 교실에 가져가자 아이들이 '유치원 때 읽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토론과 접목해 이야기하다 보니 책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었다며 좋아하는 아이가 많았어요."

김재란 시흥 장곡중 교사는 "이제 아이들이 먼저 그림책을 찾는다"며 웃는다. 권순홍 시흥 서해고 교사는 그림책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어떤 아이도 학급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율 활동 시간에 <초코곰과 젤리곰>이라는 책을 펼쳤어요. 그림책이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수업에 깊이 집중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누구나 그림책을 통해 수업과 학급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조일희 시흥 응곡중 교사도 부담 없는 그림책으로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긴 텍스트를 읽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교과와 학급 운영에 그림책을 활용하는 편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주고, 관계를 꽃피우는 지혜

이렇게 그림책을 활용해 학급을 운영하자 통과의례처럼 지나가야만 했던 모든 학급 운영의 대소사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 반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조차 이를 인기투표라고 생각할 만큼 그 의미가 퇴색했을 때, 김준호 시흥 장곡중 교사는 반 아이들에게 <왕 한번 잘못 뽑았다가 큰일 날 뻔했네>라는 책을 소개했다.

"몇 년 동안 후보자 토론회를 계속해오면서 제 목표는 오로지 토론회를 잘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도, 저도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리더의 자질'이었죠. 또 '리더의 가치는 중요하고, 이런 리더를 뽑아야 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책을 읽고 난 뒤에 더 크게 와닿았나 봐요. 아이들이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을 직접 느끼고 고민하니 확실히 토론도 더 진중하게 변하더라고요. 아이들 각자 견해에 따라 리더를 뽑아야 하니까요."

학급에서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던 일이 생길때도, 마음이 괴로울 때도 역시 그림책이 보약이 되었다.

"학급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방관하는 아이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네 탓이 아니야>라는 그림책을 읽고 나서 소감을 쓰게 했어요. 그때 알았죠. 아이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도 왕따를 당할까 봐…. 저와 상담할 때는 얘기하지 못하던 진심을 알게 되니 무관심한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보듬어줘야 할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교사들은 그림책으로 학급 운영을 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담아 <그림책 학급운영> 저서를 냈다. 이전에 그림책과 관련한 책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김준호 교사가 주도해 아이들과의 첫 만남, 학부모총회, 종업식 등 각 상황에 맞는 그림을 찾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모았다. 책이 나오자 특히 동료 교사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책대로 학급 운영을 해본 교사들이 너나없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책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었다며 좋아하는 아이가 많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먼저 그림책을 찾는다."

그림책에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 있다

"아이가 첫 그림책을 접하는 것은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부터예요. 즉 그림책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반 아이 중 자존감이 낮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아이가 많아요. 그런 아이에게 그림책을 통해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요."

전안나 시흥 응곡중 교사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저는 공감이라는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황에 공감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책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해주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임수연 시흥 군자디지털과학고 교사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이제는 그림책으로 오히려 꿈이 생겼다고 말하는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이들은 새로운 꿈을 위해 7월부터 경기도 교사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교육 활동, 학급 운영, 상담 등 그림책 활용 방안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그림책을 통해 성장해나갈 교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가끔은 한마디 말로,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림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훈계가 아닌 조언으로, 책임감보다는 사랑으로 '우리 반'을 운영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그림책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뉴트로에 풍덩

유행은 돌고 돈다. 과거에 유행한 디자인에 새로움이 더해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때 그 시절, 엄마 아빠의 청춘 시절, 그 세대 문화를 모르는 젊은 청춘은 이 모든 것이 즐겁고 새롭기만 하다.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추억과 신선함이 만나 새로운 트렌드, 뉴트로(New-tro)를 만들었다. 글 **김영주** 일러스트 **청운**

Shall We Dance?

롤러장

7080 청춘에게 가장 설레고 핫했던 만남의 장소. 놀이 문화가 다양해져도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은 남아 있다. 이전의 롤러장과 현대의 문화가 결합된 '뉴트로 롤러장'은 최신 아이돌 노래와 조명이 어우러져 미세먼지와 더위를 피하는 새로운 데이트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름방학 필수 놀이 코스로도 제격이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47 롤퀸롤러장

02-925-8080

부모님 옷장을 탐내기 시작했다

스트리트 뉴트로

뉴트로 패션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한동안 여름에 인기를 끌던 래시가드 수영복 대신 복고풍 수영복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웨어, 팬츠, 신발은 물론 안경과 컬러 실핀 등 액세서리에도 뉴트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청청 패션, 통바지, 로고가 크게 보이는 의류 또한 뉴트로 패션의 한 양상이다. 유행에 민감한 연예계에서는 이미 딘, 선미, 정려원 등 뉴트로 패션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제 부모님이 입던 헌 옷도 핫한 옷이 될 수 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

개화기 문화

관광 명소에서 옛 교복이나 한복을 입고 여행했다면 이제는 개화기 의상이 대세! 1876년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온 시기를 뜻하는 개화기. 당시 의복 형태가 파격적으로 바뀌며 모던 보이와 모던 걸, 신여성 등을 탄생시켰다. 이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 익선동을 선두로 인천 차이나타운,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개화기 의상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기념사진은 물론 과거를 품은 콘셉트 여행을 떠나며, 개화기 의상을 입고 셀프 웨딩을 찍는 예비부부도 늘고 있다.

인생은 맛과 재미

뉴트로 패키지

식음료업계가 뉴트로 트렌드를 입었다. 단종된 제품이나 패키지에 복고풍 감성을 넣어 재출시하는 것. 업계의 새로운 활력으로 뉴트로 마케팅이 부상하고 있다. 뉴트로 패키지로 새롭게 등장한 식음료는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젊은이에게는 재미를 팔며 좋은 영향을 준다. 빙과 시장에 재등장한 별난바, 서주아이스, 구미바와 주류 시장에 레트로 감성을 더해 다시 찾아온 진로, 대선 등이 그 예다.

추억 하나 둘러보는 곳

서울풍물시장

뉴트로의 모든 것을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곳. 가구, 소품, 식당 등 옛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공간이다. 다이얼 전화기, 카세트, 타자기 등 손때가 묻은 물건이 켜켜이 쌓여 있다. 2층으로 된 시장은 골동품, 구제 옷, 주전부리 등이 구비되어 있다. 천천히 둘러보며 옛 추억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 02-2232-3367

베를린
Berlin
장벽 너머의 도시

아주 많은 베를린이 있었다. 문학과 지성의 도시부터 전쟁과 정복의 땅까지. 학살과 참극의 주범부터 화해와 평화의 상징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독일 베를린은 쉼 없이 변해왔고, 다시 새로운 베를린이 탄생하고 있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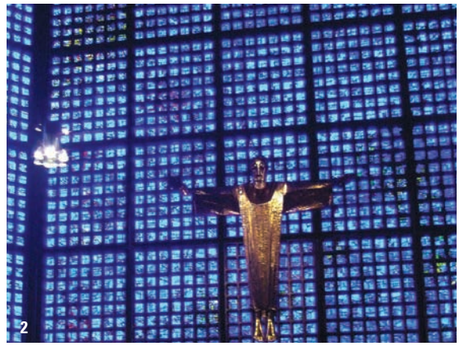
독일 베를린의 서쪽, 가장 붐비는 쿠담(Ku'damm) 거리를 걷는다. 정확한 명칭은 쿠르퓌르스텐담(Kurfürstendamm). Zoo역(驛)에서 놀렌도르프 광장(Nollendorfplatz)까지 이어지는 3.5km의 번화가다. 비유하자면 제2의 샹젤리제랄까.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쿠담이 아니다. 활기찬 거리 끝에 자리한 치욕과 참회의 집.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Kaiser Wilhelm Gedächtniskirche)가 기다리고 있다.

참담한 야욕이 있었다

쿠담의 시작이면서 끝인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독일의 과거를 먼저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독일이 유럽의 역사 전면에 등장한 것은 신성로마제국부터다. 이후 독일제국과 바이마르공화국 시대를 거쳐, 문제적 '나치 독일(1933~945)'이 탄생한다.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체코, 폴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수많은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특성이 독일에 세계 제패(制霸)와 정복 야욕을 불러왔을까. 나치 독일은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대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의 역사를 썼다.
결국 패전국이 된 독일에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후속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포츠담회담(1945)이 원래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무너진 도시에는 어디에도 회의를 할 만한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인근 도시 포츠담에서 열렸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썩은 이빨로 전쟁의 상흔을 기리며

무너진 전범(戰犯)의 도시. 그 한복판에 바로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가 있었다. 독일의 첫 번째 황제를 위해 세운 영광의 교회는 1943년 영국의 폭격으로 처참히 부서진다. 이후 시간이 흘러 베를린 전역은 본격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다. 새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건물을 세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복원되지 않는다. 왜일까. 무너진 교회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이들은 독일인이었다. 상흔을 보며 전쟁의 과오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일부러 교회를 다시 짓지 않았다. 화려한 번화가에 보존된 폐허. 모르는 이에게는 을씨년스럽게, 아는 이에게는 슬프거나 숭고하게 읽히는 정경이다. 현대적이고 환한 쿠담 거리에 저 혼자 부서진 채 서 있는 검은 교회는 '썩은 이빨'이라고 불린다.
독일은 부서진 교회를 복원하는 대신 그 옆에 실험적인 교회 하나를 세운다. 건축가 에곤 아이어만(Egon Eiermann)의 원래 계획은 구(舊)교회 첨탑을 헐고 그 위에 새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었는데, 독일 국민의 뜻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 교회의 잔해 옆에 지었다. 신(新)교회는 콘크리트와 강철, 유리를 기본 재료로 팔각형 구조 위에 육각형 첨탑을 올려 만들었다. 내부에는 2만여 개의 푸른 스테인드글라스가 빛나고 있는데, 파란빛이 물처럼 비추는 검고 어두운 교회 안은 엄숙한 동시에 몽환적인 분위기가 난다.



1.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의 구교회 건물 중 폭격 이후 남은 유일한 부분. 나머지는 모두 붕괴됐다.
2.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의 신교회 예배당 내부
3. LP 음반 가게에서 잠시 음악을 청하는 청년. 독일 청년들의 쉼터도 한국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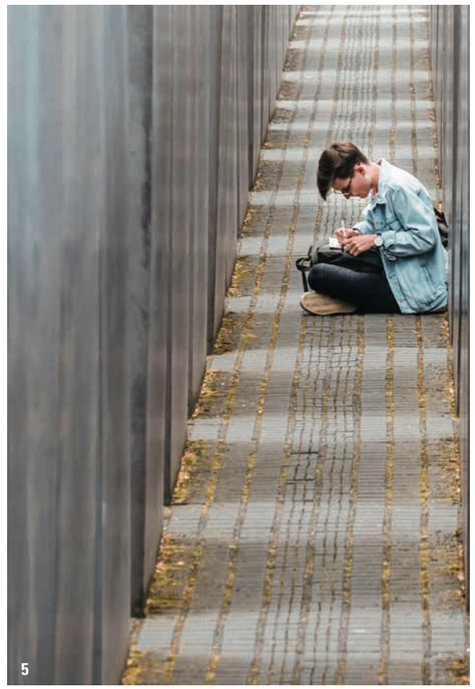
4-5. 유대인학살추모공원을 메운 직육면체의 비석. 어쩌면 독일은 여전히 그날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묘비로 가득 찬 공원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를 벗어나 차를 타고 동쪽으로 10분 거리. 베를린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연방 행정 지구와 티어가르텐 공원이 위치한다. 여기에 또 다른 참회의 장소가 있다.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을 애도하기 위한 공원이다. 이곳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선다면 누구나 기묘한 풍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수천 개의 검은 관이 공원에 빼곡히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2만여m^2 부지에 조성된 유대인학살추모공원(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을 메운, 흡사 석관(石棺) 같은 구조물은 실은 직육면체의 비석이다. 총 2700기(基)가 조금 넘는다. 검은 비석 중 어떤 건 높이가 몇십 센티미터이고, 어떤 건 수 미터에 이른다. 하나하나가 당시 학살당한 유대인을 부르는 슬픈 호명이다. 희생자의 관과 같은 추모비 사이를 고요히 걷는 엄마와 아이, 그 위에 걸터앉아 아련하게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 구석에서 노트를 적거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학생들까지. 어쩌면 독일은 아직도 매일매일 그날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장벽을 넘는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비극과 참회에만 도시를 투영한다면, 고작 베를린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2019년의 베를린은 '힙스터의 성지'이자 '제2의 뉴욕'이라고 불리



며 세계에서 가장 젊고 트렌디한 도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클럽과 파티, 축제는 유럽의 청년을 빨아들이고 있다. 젊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유럽의 기술 자본은 베를린을 최고의 IT 스타트업 허브로 꼽는다. 도대체 어떻게 전쟁과 평화를 합의한 장벽의 도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해답의 실마리는 놀랍게도 거리의 예술가가 쥐고 있다.

분단 시절 베를린은 동서로 나뉘어 있었다. 통일 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베를린은 개발과 부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 예술가를 불러 모으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마치 1900년대 중·후반의 뉴욕처럼, 베를린에 모인 예술가들은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과 폐건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작은 술집, 화방, 클럽이 생겨났다. 예술가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새 공간을 만들고, 문을 연 공간은 다시 더 많은 아티스트를 불러들였다.

6

6. 슈프레강을 가로지르는 오버바움 다리. 분단 시대에는 동·서독을 나누는 경계의 다리였다.
7. 전쟁과 분단에서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된 베를린 장벽.
8. 베를린의 초여름 저녁 햇살로 반짝거린다. 거리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이 꽃핀다.

7

8

전후 도시 베를린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유와 기회를 내어주었다. 그리하여 장벽과 폐허의 기억을 뒤로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의 도시로 꽃핀다.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갤러리가 있는 나라의 문화 예술 수도 베를린. 최근 통계로 50여 곳의 개성 넘치는 연극관, 170여 곳의 미술관, 500여 개의 갤러리와 2만여 명의 예술가가 이 도시를 채우고 있다.

내일의 베를린에게

초여름의 마른 저녁 햇살을 맞으며 돌아오는 길. 오늘도 거리 위 예술가들을 만난다. 가장 먼저, 생의 마지막 작품을 그리려는 듯 어떤 비장함까지 엿보이는 초상화가. 사실 초상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천천히 뜯어보면 하나 예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얼굴. 그러나 저 이가 하얀 캔버스 위에 새겨 넣는 얼굴에는 화가가 건너온 시간만큼의 해석과 감각과 이야기가 담긴다. 그 옆에는 젊고 잘생긴 음악가가 오늘의 무대를 열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 음 한 음 조심히 뱉는 'Stand by Me'를 감상한다. 노래를 마치고 그가 차분하게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넘기자 단정한 눈썹이 드러났다.

바로 저 열정. 저 감각과 저 몰입이 지금의 베를린을 만들었다. 내일의 베를린으로 향하는 길을 내고 있다. 그 길은 어쩌면 덜 빠르지만 더 멀리 갈 수 있고, 덜 경쟁하지만 더 높게 오를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 가만히 서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도로 옆에 핀 엉겅퀴를 한참 바라보는 예술가를 본다. 그녀가 이 시간을 엮어 노래를 지을지, 반지를 만들지, 그라피티를 그릴지 알 수는 없으나, 틀림없이 환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베를린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베를린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꼭 들러야 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베를린장벽기념관'입니다. 과거 동서를 가른 장벽의 모습과 갈등하는 동시에 그리워하던 군인과 시민의 모습 등 분단을 둘러싼 서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통일 전 감시 초소와 검문소를 그대로 옮긴 곳입니다. 젊고 예술적인 베를린을 만나고 싶다면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추천합니다. 세계 최대 야외 갤러리에서 베를린의 예술가가 만드는 다양한 작품과 콘텐츠를 만끽할 수 있답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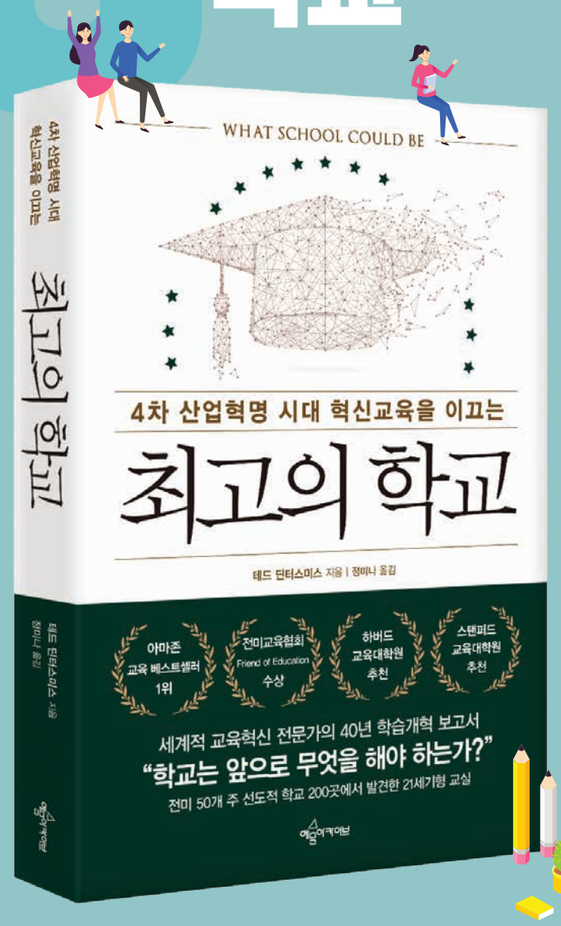
V 교사 불신

"스스로의 변화를 제시하고 비전을 도모하지 않는 교사, 단지 안정되고 편한 직업으로 선택한 교사, 수업만 잘해 대학 진학률만 높이면 되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S 최고의 학교

교육만큼 말 많고 탈 많은 것도 없다. 세상을 위해, 미래를 위해, 후세를 위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면서 교육만큼 함부로 말하는 것도 없다. 교육에 관한 한 누구나 무지한 전문가다. 나름대로 교육관, 교육 철학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도 없다. 학부모도, 정치 지도자도, 언론도 모두 제각각이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말로는 '백년대계'를 외치지만 오로지 '내 아이'에게 유리한 교육 제도와 환경만을 고집한다. 교육에서조차 '이기적 진실'이 지배해 그것에서 벗어난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와 선택은 없다.
교육 개혁보다 어려운 것이 없고, 누가 선뜻 나서 용기 있게 그것을 부르짖기도 쉽지 않다. 시대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시대 변화를 예견하고 어느 분야보다 앞서 준비해야 하는 교육이 가장 견고한 벽을 쌓고 있는 이유다.

글 **이대현**(국민대 언론학부 겸임 교수·한국일보 논설위원)



"삶의 준비가 아닌 대학 입학 준비에 몰두하는 교육, 아이의 행복을 앗아가는 부모들의 간섭, 불평등한 교육 환경이 한마디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
문제의식을 지닐 때
교육의 미래가
바뀐다

교사불신

홍섭근 지음 · **테크빌교육** 펴냄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사불신>을 통해 "변화보다 타협이 쉽고, 개혁보다 관행이 편하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관행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나와 다른 사람을 거부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 관행이 학교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학교 폭력, 성적에 따른 차별, 왕따, 성폭력과 희롱, 성적과 학생기록부 조작 등으로 학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벽은 안에서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스스로 관행을 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밖에서 누군가 벽을 부수고 들어가면 또 다른 통제와 타율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교육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홍섭근 연구위원이 말하는 '동료(교사)들의 냉소적 시선, 중앙 관료의 압력, 법과 제도에 무관심한 국민과 학부모,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는 교원과 시민단체, 힘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거나 타협해버리는 정치권'이라는 답답한 현실의 벽을 깰 사람은 교사와 학생이어야 한다.

넘어야 할 벽은 또 있다. '교사불신'이다. "교사를 어떻게 믿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요즘, 교사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운 일이 지금도 학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이 이를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고 일반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일 '하나'만으로도 교사불신을 낳기에 충분하다. 교사불신은 당연히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한다. 우리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허구가 아님을알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이 온전히 교사에게 있는가. <교사불신>은 물론 1차적 책임은 '교사들의 사회 변화에 대한 무관심과 보수적인 시선'이라고 진단한다.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인성과 사회적 가치의 포기가 이런 현상을 낳았다는 얘기다. 틀린 지적은 아니다. 스스로의 변화를 제시하고 비전을 도모하지 않는 교사, 단지 안정되고 편한 직업으로 선택한 교사, 수업만 잘해 대학 진학률만 높이면 되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교사이자 교육정책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고민해온 홍섭근 연구위원은 <교사불신>에서 '사회 전반의 제도나 시스템은 문제가 없을까?' '교사 또한 제도의 희생양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사불신을 불러일으킨 사건·사례의 이면으로 현재의 제도와 정책의 한계, 상황, 교직 문화의 관행, 국민의 오해 등을 질문하고 그 대안을 용기 있게 제시한다.

학생 안전은 출입 통제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주민을 위해 학교를 개방해야 하는 지역사회에는 책임이 없는가. 현장체험학습은 이벤트업체 직원도 아니고 프로그램 기획자도 아닌 교사가 계획에서 실행까지 모든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가. 초등학교 3시 하교 정책 도입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가 아이들 학대와 안전사고를 막는 만병통치약인가. 학교에서 성희롱과 학교 운동부에서의 폭력과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방학 기간을 이용한 교원연수 특혜 논란에 제도의 잘못은 없는가.

<교사불신>은 문제 제기와 비판에 머물지 않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 안전의 책임은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현장학습체험은 학생 주도형으로, 초등학교 3시 하교 정책은 정규교사 충원과 교육시스템 개선, 교사의 시스템 분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할당제와 학교 운동부의 지역사회로 이관, 입학사정관 교원 파견 등도 제안한다.

이런 제안으로 교사들에게 학교와 교육 불신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도, 교사불신이 사라진다는 얘기도 아니다. <교사불신>은 무엇보다 교육계 내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교사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객관적 시선에서 학교와 교직 사회를 들여다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바꿔야 할지 학습하고 연구하라고 촉구한다. 교직 사회에 만연한 책임 회피, 특권 의식, 심각한 결함이 있는 교사까지 감싸는 폐쇄성 등을 과감히 버리라고 충고한다. 임용 교사의 개혁, 혁신학교, 행정과 교무 기획 전담교사제,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육과정 자치의 도입과 확대도 주문한다.

이 같은 성찰과 대안 모색을 통해 <교사불신>이 바라는 것은 교사들 스스로 교육 제도와 정책에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 자치와 교권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다. 그 노력이 미래의 교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환경에서
만드는
21세기형 교실

최고의 학교

테드 딘터스미스 지음
정미나 옮김 · **예문아카이브** 펴냄

교육 개혁과 공교육, 교사불신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래서 혁신 교육을 부르짖으며 용감히 나선 사람이 테드 딘터스미스다. 미국 최고 권위의 교육 혁신 전문가로 다큐멘터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법>을 만들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알린 그는 40주 동안 미국 50개 주를 돌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21세기형 교실'을 만든 선도적 학교 200곳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평범한 환경에서 혁신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와 그들의 학습 사례를 <최고의 학교>라는 책으로 펴냈다.

미국의 표준화된 기존 교육 제도는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더는 유용하지 않다. 테드 딘터스미스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강의실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자질을 키워주기보다는 그저 학습 내용을 달달 외우고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과 대학 입학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획일화된 표준 교육, 삶의 준비가 아닌 대학 입학 준비에 몰두하는 교육, 아이의 행복을 앗아가는 부모들의 간섭, 불평등한 교육 환경이 한마디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료주의 폐해도 우리 못지않다.

비단 테드 딘터스미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교사가 많다. 그들은 용기 있게 미래에 결맞은 학교를 구상하고, 표준화 교육에 맞서고,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실로 바꾸고, 평가에 치우친 교육을 재편했다. 그런 학교에서 그가 공통적으로 만난 것이 내용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 핵심 요소, 즉 '목적의식(Purpose)' '재능과 사고방식인 필수역량(Essentials)' '주체성(Agency)' '깊이 있고 오래 남는 지식(Knowledge)'을 키워주는 '피크(PEAK) 학습 환경'이다.

테드 딘터스미스는 이를 위해 교사와 교육 정책가, 학부모, 지역사회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한다. 이 책 역시 출발은 지금 미국이 처한 온갖 어둡고 갑갑한 교육 현실에 있다. 그 현실은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미래의 우리 교육을 위해 그가 만난 '21세기형 교실'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 번쯤은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교사불신>도, <최고의 학교>도 완벽한 정답은 아니다. 교육에 관한 한 완전무결한 정답은 없다. 다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교사불신>과 <최고의 학교>가 이상과 원론에 머물고 있다 해도 적어도 하나의 이정표는 될 수 있다. 혁신이라고, 개혁이라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다. 교육 혁신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최고의 학교>가 소개한 것처럼 "한 번에 한 교실, 한 학교, 한 교육청부터 변화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선 '나'부터의 용기와 의지다. 세상 모두가 잠들고 잠든 척해도 교육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백년을 위해.

작은 학교가 만드는 행복한 미래

서 울 용 암 초 등 학 교

서울용암초는 남산 자락에 있는 작은 숲속 학교다. 작은 학교이지만 단단함은 남다르다. 공간의 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키워내며, 숲속 작은 학교이기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도 다채롭다. 서울용암초 교실에,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논다. 해죽해죽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동실동실 곱기도 하다. 초목보다 싱그러운 서울용암초의 행복한 모습을 가득 담았다. 글 **홍한솔** 사진 **한상무**

"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학교가 제일 좋아요!" 아이의 말이 옳았다.
서울용암초는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서울용암초의 동화 같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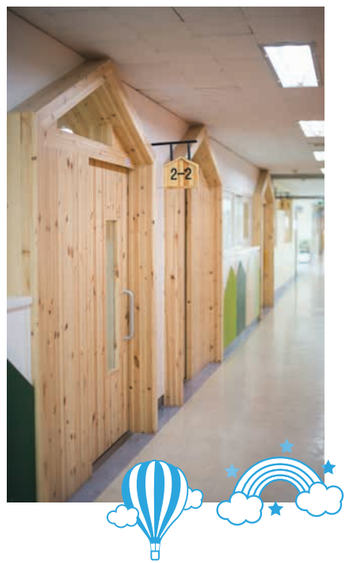
서울용암초는 전교생이 170여 명으로 매우 작은 학교다.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학교라고는 믿기 어려운 규모다. 한때는 계속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통폐합 위기를 겪기도 했다.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당시 서울용암초의 고민은 깊었다. 마침내 학교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해답을 교육 공간의 혁신에서 찾았다.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렇게 서울용암초는 기적처럼, 아니 동화처럼 되살아났다.

먼저 남산 숲속에 자리한 학교라는 강점을 살려 공간을 바꾸기 시작했다. 편백을 주재료로 사용해 숲속에 온 듯 숲 향기가 물씬 풍기도록 교육 공간 네 곳(저학년 교실, 화장실, 숲속 공방, 다문화 교실)을 새롭게 디자인한 것. 아이들이 집보다 학교를 더 좋아할 정도였다. 아이들뿐 아니다.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교직원에게 시선의 힐링을 선물한다. 계단을 오르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도서관의 넓은 창으로 남산 자락 아래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연과 도시가 교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완벽하게 변신한 것이다.

꿈을 담은 교실과 꿈꾸는 화장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웃음을 따라 계단을 한 층 올라가니 편백나무로 꾸민 복도가 눈에 띈다. 교실과 복도 사이 벽은 군데군데 벽장처럼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복도 양쪽에는 오각형 지붕 모양을 한 교실 출입문이 늘어서 있다. 방해되지 않도록 교실 창문을 통해 슬그머니 안을 살펴봤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 아이들은 삼삼오오 바닥에 엎드리거나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용암초는 저학년(1·2학년) 교실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연계해 놀이 중심의 공간으로 꾸몄다. 교실 바닥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온돌마루를 깔았고, 곳곳에 자유로이 휴식과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교실의 이름은 '꿈을 담은 교실'. 이름에 걸맞게 교실 후면에는 자석 판을 활용한 창의적 놀이 학습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건축 학교 6차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이 공간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디자이너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꾸민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도 눈에 띈다. 화장실 문마다 공룡, 나무, 동물 등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화장실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화장실 창문으로는 서울N타워가 보인다. 마치 작은 갤러리에 들어선 듯하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세미실

서울용암초는 전교생의 25%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다. 약 20개국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부한다. '세미실'은 이런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중도 입국 학생의 한국어 교육이 이뤄진다. 세미실은 꿀벌 학교를 모티브로 제작했다. 종이 기둥과 나무 상판으로 만든 벌집 모양의 알록달록한 책걸상이 공간의 핵심 포인트. 정형화되지 않은 공간은 바라보기만 해도 호기심이 솟아난다.

글로벌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 세미실은 교사와 학부모의 바람이 담긴 창의적 공간으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세계시민국제학교로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창의력 대장들의 꿈꾸는 숲속 공방

서울용암초가 자랑하는 공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꿈꾸는 숲속 공방'이다.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나무로 된 큼지막한 건물. 바깥 풍경을 집안으로 품는 한옥을 모티브로 만든 이 공간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고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게 한 목공 공방이다. 나무 벽과 나무 지붕 사이를 유리창으로 둘러싸 공방 안에서 아름다운 남산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창가에는 아이들 작품으로 보이는 소품이 진열되어 있어 다양한 영감을 선사한다. 이곳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메이커 교육이 이뤄지며,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 평생교육 목공방 '마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올해에는 텃밭 옆 도예 공방도 마련했다. 또 다른 경험으로 아이들은 한 뼘 더 성장할 것이다.

수업이 끝난 운동장에는 여전히 아이들로 북적거린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온 아이가 말한다. "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학교가 제일 좋아요!"

아이의 말이 옳았다. 서울용암초는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대한민국 만세”가 울려 퍼지던 그 길, 100년의 역사를 우리의 발걸음으로 느끼다

The-K행복서비스 에듀&JOY 서울풍류여행

무심코 지나치며 걷던 거리, 의미 없이 흥얼거리던 콧노래에도 100년 전 우리 독립을 위한 희생이 새겨져 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준비했다. 6월 6일 현충일을 앞둔 주말,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마련한 The-K행복서비스 에듀&JOY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역사와 국악이 함께하는 서울풍류여행’ 시간을 가졌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글 **강나은** 사진 **최인호**

100년 전, 당시 비극이 길 위에 남아 있다

때마침 공기도, 날씨도 모든 것이 좋은 토요일 봄 한낮, 아이의 손을 잡은 엄마 아빠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은 ‘역사와 국악이 함께하는 서울풍류여행’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인 2.5km 종로 거리를 걸으며 우리의 혼을 느끼실 겁니다.”

변상문 문화해설사의 설명처럼 공제회원과 자녀로 구성된 80명이 모인 가운데, 종로 거리를 배경으로 특별한 역사 수업이 시작되었다. 첫 여행지는 집결 장소인 우정총국이다.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기만 한 이곳. 1884년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이 열리던 날, 청년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다음 발길이 멈춘 곳은 조계사 극락전이다. 변상문 문화해설사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던 때의 풍경을 이곳에서 재연하자 아이들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빠져들었고, 드라마틱한 순간마다 ‘우아’ 하는 반응이 절로 나왔다.

여행단은 태화빌딩을 지나 승봉교회를 거쳐 탑골공원을 찾았다. 탑골공원은 당시 학생 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장소이자 3·1운동의 발상지다. 이를 시작으로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는 2000여 번 이상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탑골공원에 모인 아이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보았다. 당시에는 두려움에 떨며 토하듯 소리쳤을 외침이 이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감사함의 의미로 다가왔다.

이번에 만나볼 역사적 장소는 천도교 중앙본당으로, 독립선언서가 전국에 배포된 이야기와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독립자금을 지원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를 돌아보자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조금 더 걷자 운현궁이 나왔다. 운현궁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거주하던 처소이자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다.

“고종은 열두 살에 왕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두 살 때 왕이 되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잠시나마 고종이 느꼈을 막막함과 위태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았다. 고종의 비(妃)인 명성황후의 비극적 시해 사건과 나라를 빼앗긴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던 역사를 듣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탄식이 이어졌다.

“아픈 역사가 시작된 운현궁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상문 문화해설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민족의 애환 담은 우리 가락이 흘러나오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 국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가야금 명창 박귀희 선생이 여관으로 운영하던 운당여관, 수많은 명창을 배출한 조선성악연구회 터, 그리고 창덕궁 돈화문부터 종로3가역까지 국악 거리를 지나 서울돈화문국악당을 찾았다.

이곳에 펼쳐진 잔디밭에서 잠시 샌드위치와 주스 등 간식을 먹은 뒤 오늘 공연인 <조선 칸타타 작금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공연장으로 들어섰다. 첫 곡은 '이 산 저 산'으로 사계절을 인생에 빗대어 노래한 곡이다. 흔히 듣기 어려운 국악을 바로 눈앞에서 접하자 아이들은 생소함에 낯설어했다. 하지만 곡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그 뒤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뜻밖에도 방금 전까지 해설을 맡아준 변상문 문화해설사로, 이번에는 이야기꾼인 변사로 공연을 소개했다.

"이 공연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골목을 지나며 흩어진 역사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역사를 울림으로 들려주는 사랑방 음악회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음악은 진도북춤이다. 흥겨운 박자에 맞춰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남기희 무용가가 보여주는 춤사위에 아이들도 절로 어깨를 들썩였다. 외세의 잦은 침입으로 피폐해진 민중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민중의 애환을 담은 '한오백년'이 연주되었다. 피아노와 해금, 콘트라베이스가 더해진 퓨전곡을 통해 국악의 색다른 변신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곡은 백범 김구 선생이 수감 생활 중 즐겨 부른 판소리 춘향가 중 한 대목 '갈까부다'다. 연이어 뮤지컬 <영웅 안중근>의 '장부가'가 이어졌다. 방금 전까지 역사 여행을 하고 와서인지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이기를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가사에 가슴이 더욱 아렸다.

최초의 금지곡 '황성옛터'는 조선의 부활을 꿈꾸었고, '목포의 눈물'은 영웅이 나타나기를 빌었다. 한편 두만강 변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울고 있는 여인의 곡소리는 '눈물젖은 두만강'으로 작곡되었다.

"서양은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멎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숨을 거두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서양음악은 심장박동에 따라 박자를 맞추지만 국악은 호흡에 맞춰 연주합니다."

배경을 듣고 살풀이춤을 보니 숨결에 따른 움직임이 보였다. 흰 한복과 수건이 이리저리 펼쳐지고, 느린 듯 박자를 타는 춤사위에 흠뻑 빠져들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병된 학도병들이 탈출해 광복군으로 들어온 날, 광복군은 모두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당시 부른 '각설이타령'을 개사한 '광복군연가'가 무대 위에서 재연되었다. 무대에서 "얼씨구" 외치면 객석에서 "좋다" 하며 흥을 돋웠다. 곡이 끝난 뒤 "아이고, 힘들다"는 한 어린아이의 외침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역사는 흘러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 민족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분단의 아픔을 들려줄 '고향으로 가는 배'와 피란살이의 고됨을 담은 노래 '단장의 미아리고개' '굳세어라 금순아'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이제 더 이상 임진왜란이나 전쟁, 피란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아닌 우리 민족의 하나 됨을 노래하는 '아리랑'이 울려 퍼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였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앙코르 요청이 터져 나왔다. 이에 무대에서도 '진도아리랑'으로 화답했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흥겨운 우리 곡에 목청껏 '아리랑'을 부르며 '역사와 국악이 함께하는 서울풍류여행'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함께 걷기를 다짐했다. 미래의 100년을 준비할 이들과 함께.

MINI INTERVIEW

변상문 문화해설사

제가 지금까지 3·1운동과 관련한 일제강점기에 대해 꽤 오랫동안 강의해왔는데, 오늘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선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려드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또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 공연을 보고 박수 치며 공감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박소영(서울을지초 교사) · **아들 김민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역사 과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컸어요. 그런데 문화해설사님께서 당시 상황을 연극처럼 설명해주시고, 퀴즈도 내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어요. 게다가 역사 투어 프로그램이 국악과 연결이 되어 있어 더 뜻깊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주세요.

조혜민(강원 내성초 교사) · **딸 고서린**

'서울풍류여행'을 하면서 모르던 역사를 알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커 우리 역사에 대해 물어보면 다시 한번 이 코스대로 남편과 함께 둘러보고 싶어요. 강원 원주에서는 국악 공연을 잘 접할 수 없는데, 이렇게 역사 수업에 국악 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왔지만 제가 더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채움과 비움이 가득한 곳

느릿느릿 경주를 즐기리랏다

The-K호텔경주 롱스테이

경주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마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이 경주를 처음 만난 건 수학여행에서였을 것이다. 불국사와 첨성대는 단체 사진의 배경으로, 천마총과 석굴암은 삼삼오오 둘러봤을 것이며, 잠은 40대 이상이라면 한 반 모두 한 방에서, 30대라면 한 반이 두세 개 방에 나눠, 20대라면 한 방에서 대여섯 명이 잤을 게다.

경주의 첫인상은 그러했다. 그리고 그렇게 경주를 끝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혼여행으로, 답사와 엠티로, 연수와 워크숍으로… 우리는 잊을 만하면 다시 경주를 찾았다. 어느 날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들고, 어느 날은 황리단길을 여행하며, 어느 날은 맛집으로 유명한 김밥 가게 앞에서 기나긴 줄을 서고, 또 어느 날은 황남빵을 입에 물고 다녔다.

그럼에도 늘 피상에서 비롯된 아쉬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아까움에 하나라도 더 찍고 돌아가야 하는 하루가 바쁘기만 한 생활인에게 천년 고도의 우아함을 감각하기란 항상 부족했다. 만약 경주에서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동궁과 월지에서 달빛을 담을까, 아침 삼릉에서 안개를 찾을까. 감은사 터에 걸터앉아 바람을 맞을까. 상상만 해도 좋다. 경주에서 긴 시간을 내야겠다.

공제회원 위한 요금 할인과 혜택

보문단지 한쪽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황룡사구층목탑을 담은 경주타워와 마주해 있다. 천연 알카리성 온천수가 용출되는 스파월드와 150여 개의 온돌 객실을 보유한 특징이 있다. 교직원공제회 회원은 공제회 출자회사인 전국 The-K호텔에서 숙박 시 회원가가 적용돼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The-K호텔경주의 경우 3~7박을 한다면 회원가에서 3만원이 추가 할인되고, 8~30박은 1박당 5만~7만원으로 체류할 수 있다.

롱스테이를 한다면 다양한 부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우선 식사, 음료, 베이커리를 20% 할인해주며, 특히 조식을 1만원(정상가 2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스파월드도 7000원(정상가 1만3000원)에 입장 가능하고,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도 준다. 더불어 ▲전면부 객실 우선 배정 ▲체크인 시 전담 직원 원스톱 서비스 ▲세탁료 20% 할인 및 다리미 제공 ▲비즈니스 센터 무료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 내 서비스 외에도 경주에서의 다채로운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외부와 연계해 준비했다. 경주 시티투어, 씨네큐 영화관, 정동극장,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을 할인 특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꽃마을경주한방병원의 건강검진도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받아볼 수 있다. 의미 있는 체류를 위해 노인 요양, 장난감도서관, 미술관 등의 봉사 활동도 소개해준다.

롱스테이 예약은 전화(054-745-8100)로만 가능하다. 숙박 일자, 성수기, 예약 상황 등에 따라 예약 여부 및 요금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해 The-K호텔경주에서 느긋한 롱스테이를 즐겨보자.

The-K호텔경주 롱스테이 요금

구 분		1~2박	3~7박	8~30박
일~목요일	일반실	공제회원 회원가 (50%)	공제회원 회원가에서 3만원 추가 할인	5만원
	준특실			7만원
금요일	일반실			5만원
	준특실			7만원
토요일	일반실			5만원
	준특실			7만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 **054-745-8100**

The-K호텔의 롱스테이 프로그램은 경주호텔을 비롯해 지리산가족호텔(061-783-8100), 설악산가족호텔(033-639-8100)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BBQ&비어

파티가 열리는 정원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높게 솟은 초록빛 나무가 넓은 잔디밭을 둘러싸고 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청량한 물소리를 내는 분수가 흐른다. 라이브 공연은 만찬 분위기를 더욱 돋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고 풍족한 음식이다. 호텔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숯불 바비큐는 냄새만으로 황홀한 유혹을 건넨다. The-K호텔서울에서 9월까지 열리는 BBQ&비어 파티에 꼭 가봐야 할 이유다. 글 **강나은** 사진 **이성원**

BBQ와 맥주가 넉넉한 자연으로 떠난 여행

바쁜 한낮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스미는 저녁 시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정원에서 특별한 파티가 열린다. 도심에 위치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탁 트인 약 10만5800m²(3만2000평) 대지에 고객들이 속속 자리를 잡는다. 매년 이곳을 찾는 단골 고객층이 생길 만큼 The-K호텔서울 BBQ&비어 파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특별한 저녁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야외 정원에 테이블을 두고 바로 그 옆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만큼 The-K호텔서울에서 자연과 음악, 분위기를 함께 느끼면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수 The-K호텔서울 식음팀 지배인은 테이블 가득 자리 잡은 고객들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고객에게 BBQ&비어 파티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LA갈비구이, 숯불닭갈비구이, 모둠소시지구이 등 특급 호텔 메인 셰프가 직접 구워 주기 때문이다. 라이브 그릴 요리는 화려한 불꽃으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숯불 향으로 후각을 한 번 더 매료시킨다.

"우아, 여기에서 직접 구워 주나 봐!" 감탄 섞인 말은 '역시나'하는 끄덕임으로 바뀐다. 곳곳에서 "한 번 더 먹으러 가자. 양고기도 맛있던데?" "이것 좀 먹어봐. 딱 우리 입맛에 맞게 구워졌다"며 메뉴 추천이 줄을 잇는다. 이렇게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요리는 이승일 The-K호텔서울 조리팀장의 세심함에서 나온다.

"고기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숯불에 직접 굽습니다.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바로 구워 고객들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합니다."

BBQ&비어 파티라고 해 BBQ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프라이드치킨, 토마토 샐러드, 훈제연어 샐러드, 볶음밥, 초밥, 깐쇼새우, 계절 과일, 스낵 등 총 30여 종의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어 고르는 재미도 있다. 푸짐한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맥주는 무제한으로 스탠바이 중. 한 잔씩 부담 없이 즐길 수도 있지만 단체로 찾은 경우 피처잔 가득 시원한 맥주로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좋다. 만약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주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푸짐한 음식과 곁들일 음료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부부와 연인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를,
가족에게는 캠핑 못지않은 추억을,
직장인에게는 자연 속 힐링 타임을 선사하는
The-K호텔서울의 BBQ&비어파티.

The-K호텔서울
BBQ&비어 파티의 모든 것

기간 ~9월 28일 (화~토요일 운영)
오후 6~10시
장소 The-K호텔서울 분수광장
금액 성인 4만2000원 (화~목요일)
4만8000원 (금·토요일, 공휴일)
소인 2만7000원 (만 4~12세 미만)
문의 02-526-9556~7

교직원공제회 회원, K멤버십 회원, 객실 투숙객, 20인 이상 단체 고객, 서초구민 10% 할인(신분증 지참·중복 할인 불가)

※일·월요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7월 30일~8월 3일, 9월 12~14일(추석 연휴) 휴장합니다.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플레이트 메뉴

올해 The-K호텔서울 BBQ&비어 파티는 작년보다 더욱 색다르게 준비했다. 모두가 즐기는 뷔페 메뉴뿐 아니라 고객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스페셜 플레이트 메뉴가 생긴것. 립아이 스테이크와 양갈비가 포함된 A플레이트와 찹 스테이크와 왕새우, 관자가 수북한 B플레이트, 랍스터 꼬리와 전복, 왕새우, 소시지로 구성된 C플레이트가 그것이다. 색다른 스테이크를 더 맛보고 싶다면 A플레이트, 해산물을 좋아하는 고객이라면 C플레이트로 해산물을 양껏 즐길 수 있다.

또 만찬에 선물이 빠지면 섭섭한 법. BBQ&비어 파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매일 고객에게 푸짐하고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러키 드로(lucky draw) 이벤트도 열린다.

강남 도심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과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잘 익은 고기가 있는 만큼 The-K호텔서울 BBQ&비어 파티에서는 사진을 찍는 이가 유독 많다.

한 중년 부부는 "오랜만에 정원에 나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다"며 BBQ&비어 파티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이곳에는 가족 단위 고객도 많이 방문한다. 아이들과 함께 와도 번잡하지 않고 캠핑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덕분이다. 주차 공간도 넉넉해 각종 모임을 위해서도 안성맞춤. 그 덕에 회식으로 BBQ&비어 파티를 찾는 단체 고객도 많다.

"요즘 회식 문화는 과거와 많이 달라요. 야외에서 함께 바비큐와 맥주를 즐기실 수 있어 인근 기업체에서도 회식을 즐기러 많이 오세요."

한성희 The-K호텔서울 홍보팀 과장의 설명처럼 "고생하셨습니다"라며 맥주잔을 부딪치는 직장인들이 눈에 띈다. 퇴근 후 자연과 함께 맥주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아서인지 직장인의 새로운 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부부와 연인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를, 가족에게는 캠핑 못지않은 추억을, 직장인에게는 자연 속 힐링 타임을 선사하는 The-K호텔서울의 BBQ&비어 파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저녁, 정원의 만찬 초대에 응해보는 건 어떨까.

MINI INTERVIEW

이승일 The-K호텔서울 조리팀장

The-K호텔서울의 BBQ&비어 파티가 올해로 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주시는 고객께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새로운 플레이트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BBQ&비어 파티도 즐기면서 색다른 메뉴를 찾으신다면 플레이트 메뉴를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양수 The-K호텔서울 식음팀 지배인

The-K호텔서울은 자연 경관이 최고입니다. 호텔 뷔페가 약간 경직된 분위기일 수 있는데 The-K호텔서울의 BBQ&비어 파티는 호텔 뷔페의 퀄리티는 물론 자연과 함께하는 편안함을 느끼는 장점이 있어 고객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영 회사원

매년 The-K호텔서울의 BBQ&비어 파티에 와요. 올해도 입사한 사원들과 새로운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사실 야외 공간에 나오면 분위기는 정말 좋지만 화장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쾌적한 호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음식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역사탐방 참가자 모집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탐방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공제회원 및 중·고등학생, 간호사, 소방관이다. 탐방은 8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매회 35명 남짓으로 총 210여 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3박 4일 동안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김구 선생의 피란처이자 임시정부 요원들의 거주지였던 자싱(嘉興)과 하이옌(海鹽)을 거쳐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항저우(杭州), 한인학생훈련소 사무소가 있는 난징(南京)까지의 여정을 역사해설가의 해설과 함께한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1·2·5·6회는 개인 접수, 3·4회는 단체 접수를 받는다. 개인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www.ohmynews.com)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1회는 7월 14일까지, 2~6회는 7월 21일까지 응모해야 한다. **02-733-5505 (내선 108)**

회차	탐방 일정
1차	8월 20~23일
2차	9월 16~19일
3차	10월 14~17일
4차	10월 28~31일
5차	11월 11~14일
6차	12월 2~5일

교직원라이프 치매 관련 상품 2종 출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가 7월 치매 관련 신상품 2종을 출시한다. 우선 치매공제(1907).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의료비를 보장받고, 중증 치매 간병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음으로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유병자나 고령자도 간소화된 고지 항목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 없이(비갱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공제(1907)와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모두 허혈 성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해당 특약 가입 시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직원라이프는 지난 3월 건강정보&이벤트 페이지를 오픈했다. 갑상선암, 성대결절같이 교직원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병 위주로 핵심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가 진단, 전문가 조언 등과 함께 간단한 퀴즈를 통해 경품도 증정한다. 공제회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매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제공한다.

1577-3993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7월 7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올해 두 번째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지금의 나를 만든 서재'를 진행한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40주년 기념판)>와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를 각 2000권씩, 공제회원 총 4000명에게 증정한다. 7월 7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제·연금기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왼쪽부터 다섯 번째)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8개 공제·연금기관장으로 구성된 공제·연금기관협의회는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연금기관들은 ▲공제·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연구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웰에이징 사업 발굴 ▲세미나 개최를 통한 교류 활성화 ▲보유 복지시설 공동 활용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은퇴 후 사회공헌과 사회적 가치 제고 ▲웰에이징을 위한 은퇴자 커뮤니티 조성을 주제로 포럼도 함께 개최했다.

회원의 날 골프 행사 7월 12일까지 접수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 골프 행사가 전국 3개 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지난해까지 여주 소피아그린CC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회원의 참여와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확대해 진행하는 것. 참가를 원하는 공제회원은 4인 1팀을 구성해 7월 12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 및 소피아그린CC 홈페이지(www.sophiagreen.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8만~9만원(그린피와 카트료 포함, 식사와 기념품 제공, 캐디피 별도)이다.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게는 7월 15일 개별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회원의 날 행사에는 골프 외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일자	장소
7월 29일	전남 화순 무등산CC
7월 30일	경남 밀양 리더스CC
8월 1~2일	경기 여주 소피아그린CC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6월 12일 The-K호텔서울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직원 복지사업 협조 및 시행 ▲양 기관 보유시설 상호 활용 협조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 교직원의 평생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는 학교 현장의 교직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학술정보원과의 이번 협약으로 수납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의 협력을 통해 전국 교육가족의 편익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회원 복지서비스 '제주 한 달 살기' 신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최근 한 달 살기, 롱스테이 등의 여행·휴가 트렌드를 반영, 회원을 위한 신규 복지서비스로 '제주 한 달 살기'를 새롭게 마련했다. (주)인터치투어와 제휴해 공제회원은 제주의 5개 숙박시설을 정상가 대비 최고 66% 할인된 요금으로, 렌터카를 정상가 대비 최고 9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숙박과 차량 요금은 이용 기간, 시기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숙박시설	위치
더큐브리조트	서귀포 토평동
하모니리조트	제주 한림
로그밸리팬션	제주 애월
자연하우스	서귀포 표선
오션스퀘어	서귀포 성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 사업 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6월 11일 The-K타워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하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제회가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어린이·청소년 구호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초록우산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제회는 앞으로 초록우산을 통해 전국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최대 170명을 선정해 ▲매월 소정의 후원금 지급 ▲생활 및 학업 관리·지도 ▲단체 캠프 등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The-K호텔서울, 진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진행

The-K호텔서울은 6월 18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호텔리어 진로 체험 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자유학기제 정책과 연계된 호텔의 교육공헌 사업으로 추진됐다. 직업으로서 호텔리어에 대한 실질적 체험과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 객실부, 식음료부, 조리부 등 각 부서별 전문 강사가 체험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참가 학생들은 호텔리어에 대한 소개 및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이론과 현장 체험을 통해 호텔 업무 전반에 걸쳐 심층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The-K호텔서울은 진로 체험학습을 올해 5월 처음 시작, 앞으로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로 체험사이트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The-K호텔과 함께하는 여름 패키지

The-K호텔서울

여름을 맞아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찾는 고객을 위해 8월까지 서머 힐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A-일반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B-일반실 1박, 더파크 석식 뷔페 2인 18만원이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사우나 및 헬스장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무더위를 피해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쿠아리움 패키지도 선보인다. ▲패키지A-일반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코엑스 아쿠아리움 이용권 2매 18만2000원 ▲패키지B-일반실 1박, 코엑스 아쿠아리움 이용권 2매 13만7000원이다. 아쿠아리움 이용권은 추가로 1만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야외 BBQ&비어 파티와 연계된 BBQ 가든 패키지도 출시했다. 일반실 1박, BBQ&비어 파티 2인 쿠폰을 제공하며 17만원이다. BBQ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일·월요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모든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 우첼로, 더파크 이용 시 15% 할인 특전을 준다.

02-571-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자연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를 위해 '서머 지캉스(지리산+바캉스) 패키지'를 준비했다. 17평 객실 1박, 조식 2인, 에이드 2잔이 6만8000원~16만4000원이다. 피아골계곡, 수락폭포, 상위계곡, 당동계곡 등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계곡이 지리산가족호텔로부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061-783-8100

The-K호텔경주

The-K호텔경주는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공제회원을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머 스페셜 패키지를 판매한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야외수영장(실내 수영장 포함)·온천 사우나 2인이 포함됐으며 가격은 15만1000~20만6000원이다. 온돌 객실 이용 시 5000원이 추가된다. 또 여름을 맞아 서머 바캉스 뷔페를 선보이고, 워터슬라이드를 새롭게 내놓는 야외 수영장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야외 비어가든도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다.

054-770-9111

100개

SPC ₩10000

SPC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200개

GS25 ₩5000

GS편의점모바일상품권 5000원권(200개)

500개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Tall(5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7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8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인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 1 Life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 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담: 1577-3993 및 시도지부